2022

당신의 삶을 묻다

학부모책 이야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GYEONGGI LIFELONG EDUCATION CENTER



CONTENTS

1. 학부모책이란? ····· 03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학부모책 소개 ····· 04

2. 2022년도 학부모책 운영 현황 ····· 05
- 학부모책 프로그램 현황 ····· 06

3. 학부모책 이야기 ····· 07
하나.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박성관** ····· 08
둘.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진신숙** ····· 11
셋.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문써니** ····· 14
넷.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한나무** ····· 17
다섯.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박경아** ····· 20
여섯.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 **후카자와쿄코** ····· 22
일곱.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 **기타지마사에** ····· 24
여덟.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 **사이토향진** ····· 27
아홉. 특수교육 대상 자녀 부모 • **김수정** ····· 29

4. 학부모책 활동가 활동후기 ····· 32
하나. 특수교육 대상 자녀 부모 • **이선미** ····· 33
둘. 특수교육 대상 자녀 부모 • **공민채** ····· 34
셋.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박정연** ····· 35
넷.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최기원** ····· 35

01

학부모책이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학부모책 소개



학부모책이란?

덴마크에서 시작된 휴먼라이브러리 운동은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 학습관은 사람책의 연장선으로 2021년부터 학부모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학부모책을 빌릴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 학부모책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강의가 돼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 운영할 때는 학부모책을 강의 형식과 차별화되게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한 사람의 삶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점이고, 좀 더 많은 질문이 서로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질의응답만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 대화가 중심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학습관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학부모책을 만났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학부모책을 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여기에 13명의 학부모책을 소개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특수교육 대상 자녀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학부모책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용기 내어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작년과 올해 학부모책으로 활동하셨던 한 분의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학부모책 프로그램은 마치 '가볍게 브런치 먹으러 들어왔다가 나도 모르게 깊고 묵직한 곰탕을 소화하는 느낌이다.'
2023년도에는 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따뜻한 위로와 힘을 주는 곰탕 한 그릇의 세계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

2022년도
학부모책 운영 현황

학부모책 프로그램 현황



한 눈으로 보는 2022년도 학부모책 운영 현황

2022년, 15명의 학부모책이 608명의 학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프로그램명	대상	참여인원 회차별누적(명)
학교를 왜 가야해요?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18
학교 밖 청소년 부모를 위한 학부모책 : 행복한 나다움		20
다른 안경은 다른 세상을(1~4회차)		62
문 닫고 들어간 자녀의 마음 문 열기(1~4회차)		52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진학이야기(1~4회차)		60
너는 무슨 가치관으로 사니?(1~4회차)		66
어쩌다 학교 밖 청소년 부모(1~4회차)		61
문화다양성에 대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부모	18
슬기로운 한국생활(1~4회차)		56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산다(1~4회차)		56
다문화자녀교육의 모든 출발점(1~4회차)		75
특수교육대상 자녀 양육경험 나누기 (불안도가 높은 아이의 정서 발달 및 적응행동 지도)	특수교육 대상 자녀 부모	14
장애아동엄마의 마음 챙기기		13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외치며 살아가기		15
장애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22
합 계(39강좌)		**608**

03

학부모책 이야기

하나.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박성관**

둘.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진신숙**

셋.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문태선**

넷.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한나무**

다섯.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 **박경아**

여섯.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 **후카자와쿄코**

일곱.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 **기타지마사에**

여덟.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 **사이토향진**

아홉. 특수교육 대상 자녀 부모 • **김수정**





박성관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5남매 아빠이고요,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고 있어요.

Q 다섯 남매 전부 홈스쿨을 하는 건가요?

다섯째는 작년에 태어나서 아직 어려요. (웃음) 셋째까지 경험해보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학교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 넷째는 2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3학년까지 다닌 후 홈스쿨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Q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학교에 주기 싫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C**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 교대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명감으로 교대에 간 사람도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모습들에서 조금 실망했어요.
아내는 늘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가장 컨디션 좋을 때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지쳐서 부모님을 만난다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을 때의 모습을 다 못 보는 것 같다고. 빼앗긴 것 같다고. 산업화 시대 이후에 부모들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아이들 교육을 학교에 맡긴 거죠, 하지만 원래 교육의 주도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완전히 언스쿨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중학생 때까지 가정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고, 자라나는 과정을 함께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홈스쿨링을 한 아이들을 온실 속 화초라고 표현해요. 집안에서 돌보다 사회에 나가면 약할 수 있다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온실 속 화초도 뿌리가 튼튼하다면 밖으로 내어놔도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어떤 철학을 가지고 홈스쿨링을 하시나요?

교육의 목표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Q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가르친다기보다는 같이 배우는 거죠. 저희의 홈스쿨링 집중 프로그램은 독서에요. 결혼 초부터 TV는 사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늘 책이 있고, 책이 장난감이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요. 그러면서 저절로 글을 알게 되고, 글을 써요. 첫째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되니, 둘째도 책을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서 소통해요.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부분은 좀 두려워하긴 해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아닌가,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무언가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게 했어요.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도와줬고요. 검정고시를 보고 나면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정도의 무언가를 내가 배우고 있었고, 충분히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성취감도 생기고요.

Q 독서를 하실 때 책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루 날을 정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요.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한 사람 당 10권 이상씩 빌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책 말고도 공통의 책을 한 권 정해서 같이 읽기도 해요. 그 책에 관한 여러 가지 논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요. 어렸을 때는 동화책을 많이 읽었고, 청소년기에 들어오면서 삶에 대한 태도, 인생의 가치 관련된 책들도 같이 읽고 있어요.
한 주간 읽었던 책 중에 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어요. 왜 선정했는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내가 주인공이나 작가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바꾸고 싶은지 등등 이런 질문들을 토대로 아이들이 발표를 해요. 그렇게 추천한 책을 다른 아이가 또 읽고, 저나 아내도 읽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어요. 공통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책 속의 주인공의 말이 가족 안에서 유행어가 되기도 해요. 우리만의 소중한 추억이 생기는 것 같아요.

Q 책으로 만들어진 소통이네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기 자녀들과 대화하기 어렵다고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공통의 책을 읽고, 하루 종일 거의 같이 있으면 이야기를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 홈스쿨링의 가장 좋은 장점 같아요. 인생을 좀 길게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만약 기숙사 고등학교를 간다면 16살부터 떨어지게 되죠. 최대한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아이에게 집중해서 살고 싶었어요.

Q 아이들이 계속 같이 있다 보면,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나죠.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다투고, 고함지르고, 다치고 그래요. 주변에서 가족에서 일어난 일들만 글로 적어도 책 몇 권은 나오겠고, 시트콤 몇 편을 찍겠다고 해요. 대부분의 다툼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추억이니까요. 언제 형제들끼리 싸우고, 울고 그러겠어요.
아이들에게 이 시기가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너희들이 각자 인생을 향해서 흩어질 때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거니까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Q 지역 사회가 학교가 됐다고 했어요.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셨나요?

학교에는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교실도 있잖아요.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니 지역사회였어요.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아내가 동네 신문 기자로 활동을 했어요. 아이들과 같이 가서 취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관계가 어떤지 배울 수 있었어요. 지역사회가 학교가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는 곳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에는 정조의 화성이 있어요. 이걸 같이 연구하면서 아이들이 역사를 알게 됐어요. 지역 사회의 역사를 통해 역사 교육을 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통해 사회를 공부하고. 둘째, 셋째는 경기도 꿈나무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역사회를 관찰하고 소식을 알리면서 저절로 사회에 대해 공부를 하는 거죠. 문화 공연을 보러 가도 단순히 '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기획이 되었는지, 무엇이 목적인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취재를 하니까.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근처의 천에 가서 줍깅을 해요.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활동이에요.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라는 곳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지고요.

Q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시네요. 지역에 필요한 게 다 있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불량한 문제아 이미지였다면,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독립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관련 기관도 있고요. 예전에는 건강검진을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누리지 못했는데, 기관을 통해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홈스쿨링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시스템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Q 확실히 여러 명의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셔서 그런지, 팁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또 다른 팁이 더 있을까요?

글쓰기 훈련 차원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홈스쿨링의 가장 큰 키는 읽기, 말하기, 쓰기거든요. 제대로 읽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필요한 능력이죠.

Q 홈스쿨링을 막 시작한 부모님들께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교육 철학이에요. 저와 아내도 정해진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학교에 보낼까.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홈스쿨링을 했던 이유는 분명한 교육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 철학을 부부가 같이 공유했고요. 아이들도 그 교육 철학을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늦어도 괜찮으니까 교육 관련 책을 많이 읽고, 우리 가족만의 교육 철학을 꼭 가지고 아이와 공유하면 성공적인 홈스쿨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신숙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Q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심리 상담사, 코치로 활동하고 있어요. 학부모들 교육, 소통 같은 교육을 하거나 코치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3 한 명, 중3 한 명 이렇게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어요.

Q 뉴질랜드를 다녀오시고, 둘째 아이를 키울 때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바뀌셨나요?

둘째 아이가 어린 시절 조금은 달랐어요. 우선 눈을 잘 안 쳐다봐요. 소통이 잘 안되고요. 여섯 살 때쯤에 집 근처 유치원을 보냈거든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오늘은 이렇게 못했다, 책상 밑에 저렇게 들어가 있었다, 오늘 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다. 우리 아이를 미워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시는 거였죠.

그러다가 뉴질랜드로 발령이 나서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사실 아이는 똑같잖아요. 비행기 타고 10시간 지났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하루 이틀 만에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랄까 이런 게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00이가 나한테 한 번 관심을 보였다. 그룹별로 책상에 앉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교시 동안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다른 짓을 하긴 했지만 앉아 있었다. 너무 놀랍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춰주시더라고요.

또 저희 아이가 미술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지만 손 근육이 잘 발달이 안되어있어서 뭘 만들고 그리는 걸 잘 못 했어요.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채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 모양으로 만들 생각을 했니?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니? 네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방과후에 놀이터에서 잠깐 놀다 갈 때도 엄마들이 "시간이 끝났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가자. 삽 여기다 넣고, 이건 저기다 넣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몇 시인지 알려줄까?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렇게 답하면, "집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지?"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아이들이 "우리 같이 놀았던 자리를 정리해야 해요."라고 답해요. 이런 식으로 지시보다 질문을 하는 거죠.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 존재 자체로 바라봐주는 것과 지시보다 질문하는 것들이 제게는 굉장히 큰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큰아이도 adhd 특성이 있어서 약복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약을 먹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일부러 안 먹인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처방한 약이 뉴질랜드에서는 너무 상위 레벨이라서 한 6개월이 지나야 처방받을 수 있더라고요. 학교 담임선생님이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 가족이 행복해지고 아이들과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학부모님이나 선생님, 뉴질랜드 학부모님과 선생님 모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귀국 후에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싶어서 교육들을 찾아보았어요. 그게 바로 코칭이었어요.

Q 다른 관점을 경험하며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코칭을 통해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코칭을 배운 지 한 6년 정도 됐어요. 코칭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장애를 가진 아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점을 그렇게 전환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도 괜찮더라고요. 엄마 아빠들의 기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채우지 못해도 화가 나거나, 엄마인 내 자신이 패배자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와 대화하는 소통법도 알게 됐어요. 큰아이가 좀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번은 엄마가 다른 엄마들과 하는 것처럼 했으면 나는 못 살았을 것 같다고, 집 나갔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운 코칭 대화가 우리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Q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머리로는 화내지 말아야지 해도,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화가 날 때가 있죠.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져요.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도 없고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그냥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다, 충분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그만하면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다 자신을 지키거나 타인을 도우려는 선한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아이가 한 행동에는 다 그만의 선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감이 가고요. 그러다 보면 화낼 일이 거의 없어요.

Q 아이가 자퇴를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아이가 유아 때부터 해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인이지만 마인드는 완전 외국 아이였어요. 사춘기에 한국에 왔는데, 친구들과 다른 점이 많았던 거죠. 왕따도 당하고. 그걸 아이가 꽁꽁 숨겼어요. 한 3년 동안.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중3이 되어서야 아이가 힘들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가서는 아이들과 잘 지내고, 학교생활도 잘 했는데도 학교를 다니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관계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것이 싫다고. 자퇴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학교를 그렇게 힘들게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은데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퇴를 했죠. 지금은 학원을 다니며 대입준비를 하고 있어요.

Q 어머님이 받아주셔서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코칭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강의를 들으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관점이 생기셨다고 하세요. 아이가 무엇을 잘하면 내가 잘하는 사람 같았고, 아이가 무엇을 못 하면 아이 때문에 내가 창피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나는 나고, 아이는 아이로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세요.

4-5년 쯤 전에 코칭으로 만난 학부모들이 지금도 코칭그룹을 지속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to do list를 적고, 하루 3가지 목표 행동을 하고 저녁에 체크하는 습관프로젝트 코칭 그룹인데요, 이렇게 코칭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어요.

Q 관점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께 건네고 싶은 조언은?

우선 코칭 관련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습 모임, 코칭모임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 혼자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서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계속 실천하시면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연습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딱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누구나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고 해요. 당신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해답은 아마 그분이 찾아가실 거예요!





문써니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Q “학교 밖 청소년으로 대학 가기”를 책 제목으로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큰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자퇴를 하고, 3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알리고 싶어서 주제를 그렇게 정했죠. 사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크기도 하고,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주저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친구의 아이가 1년 반 전에 자퇴를 하고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내 봤습니다.

Q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학부모님이 이런 입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학습되었는지조차도 알아야 해요. 본인의 위치부터 파악을 한 후에 엄마와 함께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죠.

Q 써니님은 자녀와 무엇부터 시작하셨나요?

처음 학교를 등지고 나왔을 때에는,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전에, 무엇을 할 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대화도 많이 나눴고요. 엄마나 주변 사람들에 의한 목표가 아니라, 본인의 목표 지점을 찾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아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서포트 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직접 공부하는 게 아니니, 이런 동기 부여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Q 목표를 찾으러 여행을 떠났다가 놀기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행하면서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이 들어줬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뭔지 들어주고. 대부분의 여행 마지막에는 함께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자신의 속내를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밤에 자려고 누워서, 손 꼭 잡고.

Q 여행을 가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밤이라는 시간이 이야기하기 편안하니 대화를 나누기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와서 바뀐 게 좀 있었나요?

사실 바로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웃음) 아이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마음잡고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평범한 학부모니까 기다리는 그 시간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죠. 이러다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닐까. 다른 선택지들도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재입학을 한다거나, 전학을 간다거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Q 대화를 나누며 아이가 하겠다고 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 수능을 준비한 지 3년 차 정도 됐거든요. 한 8~90% 정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50% 정도였다면 해가 갈수록 본인의 의지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대학을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수능을 보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변화였어요.

Q 대학을 준비하며 갈등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제가 엄마로서, 또는 조금 더 앞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한다고 하는 조언들이 사실 아이한테는 잔소리잖아요. 그 잔소리가 얼마나 싫었을지 저도 알거든요. 그래도 자꾸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올해 스무 살, 성인이 되면서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순순히 엄마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던 아이가 올해부터는 약간 '나도 성인이야!'라고 말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양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많이 풀어나가려고 해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야기하면, 아이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주거든요. 저도 딸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고요.

Q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주로 밥 먹는 시간, 잠자기 전의 수다 시간을 가져요. 하루의 소소한 일과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계속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Q 일상생활에서 많이 마주하면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게 팁이겠네요. 공부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주셨나요?

일단 책상부터 바꿨어요. 벽을 보는 환경을 피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남들이 공부하는 만큼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획을 함께 세웠어요. 하루 일과를 짜고, 주 단위로도 짜고, 한 달 단위로 짜고, 수능까지의 계획도 짜고.
어떠한 문제집을 활용할지, 어떤 인강을 들을지 그런 것들도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둘러본다거나 샘플 인강을 들어본다거나 하면서 정했죠. 이렇게 플랜을 다 짠 후에, 한 주를 경험하고 나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매일 이야기 나눴어요.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너무 과하게 세운 계획들은 과감하게 드러내고.
혼자는 이렇게 해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함께 고민하며 대화로 풀어나간 것 같아요. 1년 차에는 거의 함께 했는데

2년 차가 되니까 50% 이상 딸이 혼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3년 차가 된 지금은 스스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저는 중간 중간 잔소리 한 번씩. (웃음)

Q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 조사를 하셨나요?

학교마다 전형을 연초에 게시하거든요. 그것들을 많이 참고했어요. 대학 홈페이지들을 들락거리면서 갈 수 있는 학교에서부터 조금 더 눈높이를 높인 학교에서까지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대학 입학처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해요. 이○○, 대○, 메○ 등 연구 소장님들의 유튜브도 많이 도움 됐어요.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다소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수시 일부 전형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도 조금 있어요.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과들도 있고요. 저희는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시가 메인이기는 하지만 6개의 수시 카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시로 대학에 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Q 학교 밖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부해서 수능을 보고 대학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보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만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가족 모두가 힘들었어요. 몸도 앓고, 마음도 앓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가장 중요했어요.
회복 후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학부모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개인이 전문가가 되면 좋겠어요. 내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가 바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가지각색이니까 이런 정보들을 본인이 습득해서 아이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참 소중한 너라서'입니다. 제목처럼 우리 모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고, 내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이라 나누고 싶습니다.





한나무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Q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누구일까... 그 질문에 한마디로 답하긴 어렵지만 가정에서의 위치를 물으신다면 저는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특이점이라면 한 자녀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려는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교육이나 인생에 대한 철학을 갖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어요. 이맘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표이듯이 저도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을 안내했죠. 저는 안내했다고 말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무척 잘해서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느낌은 마치 유속이 빠른 유수풀에 빠져서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출구를 찾지 못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큰아이 수시 입시를 도우면서 엄마가 할 일이 많았는데, 그게 도덕적으로도 참 피로했어요. 부모의 길에서 학부모의 길로 들어서면서 계속 그렇게 원치 않는 유수풀에 휩쓸려 가듯이 불안하고 막막하고 피로했죠. 엄마인 제가 그렇다보니 가정에서도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큰 아이가 아닌 작은 아이가 무너졌어요. 갑자기 학교에 가는 걸 싫어하고 힘들어했죠.

처음엔 그냥 사춘기 방황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흔히 겪는, 그런 통제된 생활에서 누구나 겪는 정도의 힘듦인 줄 알았는데, 아이는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거에요. 저는 공부에 대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가 즐겁게 학교에 다녀주기만 바랐어요.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 학교만 다녀주길 바랬는데, 그것도 욕심이었는지 아이는 결국 학교를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이미 늦었던 거에요. 그때는 아이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죠. 모든 걸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더라구요.

Q 학교를 나온 후 자녀는 어떻게 지냈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서 다니는 곳 없이, 혼자서 지내다 보면 생활에 질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밤낮이 바뀌게 되고,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하는 것도 힘들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지던 운동량도 줄어들어서 건강도 해치게 되죠.

학교를 나오는 아이들 중에는 자기만의 꿈과 계획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 다니는게 힘들어서 학교를 회피해서 나오는 경우는 자기 자리를 찾을 때까지 긴 시간이 걸려요. 이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렇게 부모와의 소통마저 거부하면, 엄마들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랬구요.

Q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모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청소년기에는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을 즐겨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와 한 편이 되기는 힘들죠.
학교를 나오는 청소년들 중에는 그 이유가 방황이나 좌절 같은 상처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동시에 부모와의 소통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아이의 방황은 그 자체로도 부모에게 고통인데, 자녀가 소통마저 거부하면 부모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중고가 시작되는 거죠.
이럴 때 부모가 참 담대하게 버텨야 해요. 일방적으로라도 소통을 하고 싶다면 주로 가볍게 격려하는 말이나 일상적인 대화 정도가 좋아요. 무겁고 진지한 대화나 자녀가 뭔가 하기를 바라는 재촉하는 말 같은 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Q 자녀가 학교를 나오고 나서,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이것도 한마디로 답하긴 어렵지만,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어요.
아이의 방문 밖에서 참 많이 울기도 했지만 덕분에 참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삶을 입체적이고 유연하게 보면서 예전에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도 사라졌구요.
자기 고유의 삶이 다 있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삶이 있는 건데, 과거에는 그저 코앞에 있는 한 가지 길만 보고 살았어요. 부모의 시야가 좁으니 아이에게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못했고, 아이는 그 한 가지 길이 막히니까 자기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에요.
'저 아이는 저 아이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참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한심하게 바라보면 자녀는 자기가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또 자녀를 불안하게 바라보면 자녀도 자기 삶이 불안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낙관적인 마음,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Q 학부모책 제목이 '문 닫고 들어간 자녀의 마음의 문 열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낙관적인 마음, 자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는데, 그걸 직접 실천하기는 참 힘들죠. 더구나 학교를 나와서 방 안에서만 지내는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먼저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이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저의 솔루션이 모두의 솔루션은 되지는 않겠지만, 긴 시간을 찾아 헤맨 저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결국 아이들의 방문을 아니,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그 부모가 찾아야 하거든요. 중요한건 자물쇠 구멍에 맞는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아직도 내가 가진 열쇠에 맞게 자물쇠를 바꾸고 싶어 하세요.

Q 자녀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바뀌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아이와 소통이 된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런 극적인 순간은 없어요. 너무 긴 시간이기도 했고, 조금씩 천천히 스며들면서 편안해지는 거죠. 소통이 되는가 싶으면 다시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그런 시간이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한순간에 바뀌지 않거든요. 계속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자녀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보다는 문밖에서 눈물로 보냈던 에피소드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나요. 아이들은 힘들 때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엄마가 보이지 않고 엄마 말이 들리지도 않죠. 가끔 어머니들 중에는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노력하는데 어쩜 이럴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런 마음가짐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뭘 알아주길 바라면 안돼요. 더구나 자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맞춰줘야 해요. 미성년 자녀와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주체는 부모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주체는 우리들 부모지만 그 자녀가 사회에서 다시 잘 살아가는 것은 자녀 스스로 해야 해요. 우리가 해 줄 수 없어요. 자녀의 삶에서는 자녀가 주체가 되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려 줄 수 밖에 없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 줘야 할 것과 해주면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Q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이 시기를 보내며 아이가 저를 키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잘 크는 자녀보다 어렵게 크는 자녀는 더 큰 스승이고, 자녀가 힘들게 할수록 부모는 더 많이 성장해요. 자녀의 방황이나 무너짐은 부모에게 큰 시련이지만, 이 속에는 부모를 일깨워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죠. 이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당신은 누구신가요...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신다면, 나는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내가 나로 잘 살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내 삶에 철학이 없었고,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 좋은 엄마도 될 수 없었고, 아이도 함께 힘들었어요. 지금은 나 자신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연구소에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부모님들의 멘토링을 하며 부모강사로도 활동하고, 뒤늦게 새로운 공부도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삶은 유수풀에서 떠밀려 가듯이 살지 않고, 저만의 삶을 걸어갈 거에요. 아이 역시 자신만의 삶을 걸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삶의 길에 우열은 없고, 아이가 걸어가는 길이 제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박경아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Q “너는 무슨 관에서 사니”라는 질문으로 학부모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여기서의 ‘관’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에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수학을 더 잘하고, 영어 단어를 더 외우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의 관은 부모의 관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주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주제를 썼어요.

Q 아이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독서를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부모의 관계 정립, 가치관 정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부부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마다 사랑의 언어로 들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거든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 관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Q 남편과의 독서 모임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모임을 진행했나요?

남편이 그렇게 독서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요, 제가 엄포를 좀 놓았어요. 우리 가정이 위기라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 생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가볍게 같은 책을 읽고, 대화하는 형태로 시작했어요.

Q 어떨 때 남편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끼셨나요?

어떠한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면 자녀가 불안감을 가지잖아요. 소극적으로 행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외부에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느껴지거든요. 우리 자녀가 변하고 있다.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시작하게 됐어요.

Q 남편분과 갈등이 생겼을 때, 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나요?

네. 자녀 양육에 관해서 전적으로 엄마의 몫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남편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권해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나, 회피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와이프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강압적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도, 와이프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또 제가 말하는 것과 전문가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죠. 책을 읽고 변하는 것은 며칠밖에 안 가지만,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어요. 아이들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Q 책으로 소통하는 게 정말 좋네요. 책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렸을 때에는 제가 권해준 것이 많았죠. 특히 첫째는 제가 많이 권해줬는데, 생각보다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점에 같이 가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서 마음껏 고르게 해요.
아이들은 소설책 위주나 주간 베스트셀러 위주로 고르다가도, 가끔 미래의 직업에 대한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골라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고른 책을 통해서 아이의 관심사를 볼 수도 있더라고요.
책을 골라오면 '엄마도 읽어봤더니 좋더라, 엄마도 읽어보고 싶었던 책인데, 엄마도 어렸을 때 이런 걸 읽었어.' 이렇게 대화를 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고른 거니까 애착을 가지고 다 읽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Q 책을 직접 고르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독후감을 절대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책을 공부처럼, 학습처럼 느껴 멀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저 책을 많이 접하게 환경을 만들었어요. 집에 책이 엄청 많고, 책을 찢어도 혼내지 않았고, 정리하지 않아도 혼내지 않았고. 솔직히 어렸을 때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못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책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Q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가치관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찾은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인생들을 엿보길 원했어요. 책뿐만 아니라 영화로도요. 아이들의 세계관이 더 넓어지기를 바랐거든요. 아이들과 대화하며 찾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성실한 것이었어요. 결국 나를 존중하듯이 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지만 남들도 모두 주인공이라는 것.
아이들에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늘 숙제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내일 숙제를 안 한 아이가 되는 거죠. 제가 경험한 실패담이나 느낌들도 많이 알려줬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엄마도 이랬었는데, 그때 이런 느낌을 가졌었어. 이런 부분은 후회하고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남았을까 궁금했는데, 최근에 친구가 첫째에게 인생 좌우명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딸이 '현재가 미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엄마가 해준 말에 수긍이 가서 그랬대요. 제 이야기가 아이에게 잘 전달이 됐다는 걸 느꼈죠.



후카자와쿄코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2022 당신의 삶을 묻다
학부모책 이야기

Q 당신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다문화 가정 엄마, 후카자와 쿄코입니다.

Q 문화 차이를 적응하느라 조금 힘드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차이를 느끼셨나요?

저는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이런 점이 일본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한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어요. 또 가족 관계, 친척 관계, 모임들도 많고. 제 성격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힘들어요.

Q 힘들다보니, 짜증을 많이 냈다고 하셨어요.

네. 저희는 대가족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으니까 갈등이 심했죠. 집 안에 케어해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 혼자도 케어하기 어려운데, 아이들도 봐야 하고, 하루 종일 밥을 챙겨야 하고. 이런 일들은 끝이 없잖아요. 저를 위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일하고 오면 밥. 밥. 밥.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혼잣말로 "휴~"라든지 하는 형태로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엄마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나쁜 경험을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모두 챙겨줬었어요. 매니저 같은 역할이죠. 학교에서 뭐 했는지 묻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일일이 다 알려줬거든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었지만 제가 없었던 거죠.

Q 그 때의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나요?

한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진행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주제가 '아이의 마음을 듣는다' 였어요. 거기에서 아이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저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를 모르고, 제 마음도 모르고, 저도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의 말을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바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걱정되어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 불안해 하는 것은 내 자신이었죠.
사람은 하루에 6만 회 정도 생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굳어 있었어요. 어차피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도전도 안 했고, 무언가 실수가 일어나도 다른 사람 탓을 했어요. 제가 마음을 닫고 부정적으로 사니까 행동도 부정적이게 되고. 아이들이 저에게 보고 배운 것 역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던 화살을 제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나에게 물어보고, 지금 참고 있는 건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Q 내 마음을 들은 이후에, 아이의 마음이 들렸나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아이의 마음을 듣는 것을 시작했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입을 열게 하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그 시간동안 궁금했지만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대신 그 시간을 제게 주고, 저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어요.

노력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 거예요. 조금 조금씩.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30분 동안 밖에 나가요. 24시간 하는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30분 갖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뭐 하고 있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지금은 주말이 되면 2시간 정도 아침에 집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저를 돌아보게 되고, 저를 생각하고, 요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조금씩이지만 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한숨을 쉬는 것도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은 당연히 있죠.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럴 때 '아! 내가 나쁘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해요.

Q 학부모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지사항에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자녀 교육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미소나 분위기를 통해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다고 믿거든요.





기타지마사에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5명의 아이와,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총 10명이서 같이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름에서 보이듯이 일본에서 왔어요.

Q 학부모책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오기 전이나 유학 시절 이야기들도 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일생을 남기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어른이 되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일찍 한국에 왔거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한국으로 와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나왔어요. 또 유학생의 삶과 한국 며느리의 삶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다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Q 그렇죠. 상황별로 모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시기별로 가장 크게 느꼈던 생각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초등학생 때에는 부모님이 맞벌이 때문에 집에 안 계셨지만, 같은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편한 말을 써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유학을 오니까 언어도, 문화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춘기이고, 공부도 해야 했고, 사회 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느낀 것 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장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자신감부터 확 떨어지거든요. 일본 문화를 환영해 주는 문화였으면 달랐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도 있고, 관계도 있으니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중·고등학교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대학 생활은 또 달랐어요. 더 편해지기도 했고,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되는 과정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한국의 문화를 유학을 통해 접했지만, 한국이라는 가정의 문화는 또 다르잖아요.

Q 한국의 가정 문화는 어떻게 달랐나요?

요즘 사회에 미투 운동이나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드라마를 보면 아주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차를 마시는 환경이 나와요. 하지만 며느리로 가정에 들어가면 매우 달라요. 시부모님처럼 세대 차이가 나는 분들과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열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고, 주말은 하루에 30명분을 만들고 치워요. 전혀 다른 세상인거죠

Q 혹시 며느리가 되어 식사 준비 외에도 힘든 일이 더 있으실까요?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들이요. 주위의 눈이라든지, 시부모님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직방으로 와요.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또 농사를 같이 도와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Q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저의 모국어인 일본 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벽을 없애고 싶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기에 가장 좋거든요. 일본에서 문제집을 사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이 인성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체질상 매운 것을 많이 못 먹어요. 그 부분이 힘들지만 불평 불만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가거든요. 제가 불평 불만을 막 던지면, 아이들은 불평 불만하는 아이가 돼요.

Q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루하루 매사에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 5명의 아이들과 모여서 감사하는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실 저도 힘드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감사한 점을 찾는 동시에 아이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고마운 일은 당연히 고맙지만, 고맙지 않은 일에서도 고마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Q 일본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남편과 협상을 했어요. 아빠는 한국말, 저는 일본 말. 그래서 어렸을 때 말이 조금 느린 아이들도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 트이기 시작하면, 잘하고 뒤처지지 않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엄마가 일본어로 하니까 좀 느리다고, 한국말을 써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계속 일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정말 잘해요.
다만 아이들끼리 대화를 할 때에는 한국말을 하고, 자주 쓰지 않다보니 실력이 점점 내려가긴 해요.

Q 기회가 되면 아이들을 일본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큰 아이가 초등학생 때, 일본에 잠깐 다녀왔었어요. 한국은 겨울방학이 긴데, 일본을 짧거든요. 그 갭을 활용해서 일본 학교에 보냈더니 일본어도 확 늘고, 친구도 사귀고, 많은 것들을 얻어 왔어요. 나와 다른 문화가 있고, 그 문화 속에서 같은 인간이 살고 있다는 걸 배워왔죠. 이런 배움은 어떤 사회에서든 반드시 통하고, 평생 간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어차피 언젠가 나갈 거잖아요. 저랑 평생 같이 있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평생 갈 수 있는 경험을 주고 싶어요.

Q 정말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외국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적이 있나요?

지금은 다 훑어버린 것 같아요. 저를 일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다문화 엄마들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의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은 자신감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에 오기 전,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사회 경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느껴 오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이 사회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장점이죠.

Q 제가 너무 힘든 일만 여쭤보는 것 같아요. 장점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으셨나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대화가 돼요. 손자 손녀들과 굉장히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또 외동딸이거든요. (웃음)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글을 쓸 때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를 써요. 한자는 한국에서의 삶에도 도움이 되죠. 중국어를 배울 때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론 5남매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인내심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누군가 3명까지는 '이것도 못해서 미안해, 저것도 못해서 미안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거라도 잘했다, 이거라도 준비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대요. (웃음) 제가 못하는 부분보다 했던 부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아이들이 서로 잘 놀아요. 제가 안 해줘도 아이들끼리 소통하고, 싸우고, 화해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배워요.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 해 봐, 저렇게 얘기 해 봐" 이러면서 언어 공부도 시킵니다. (웃음)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 적어서 친구들과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선생님한테 다 이야기 한대요. 그걸 통제하는 데 하루가 간대요. 그런데 저희 집은 형제가 많으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하거든요.

Q 마지막으로 다른 다문화 가정의 어머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내 나라처럼 생활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라는 것에 자존심을 잃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이토향진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2022 당신의 삶을 묻다
학부모책 이야기

Q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인 다문화 가족 자녀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생활을 하다가, 대학생 때 한국에 와서 쭉 살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인 남편과 세 아이와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일적으로는 가평의 국제문화교류센터에서 부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통해서 엄마들과 스터디 모임도 했어요. 가평의 마을 공동체 모임도 선정되어서 다문화 엄마들과 함께 취미 활동도 1년 간 했었습니다. 일본 젊은 엄마들의 모임도 1년 넘게 운영하고 있고요.

Q 아빠 나라가 좋아? 엄마 나라가 좋아? 이런 질문을 학부모책에 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다문화 자녀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도 좀 해볼까 싶었어요. 어릴 때 어른들에게 한국이 좋아? 일본이 좋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은 둘 다 좋죠. 엄마와 아빠의 나라인데. 그 질문을 통해 국적이 다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Q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가 커서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역사적인 관계를 놓고 보면 원수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뛰어넘어서 서로를 잘 챙겨주고 아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는 제 스스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 대한 선입견, 편견도 많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고 하면 잘 못살고, 아이들 한국어 교육도 못한다는 안 좋은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Q 그런 질문은 마치 너는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정하라는 것 같아요. 혹시 사이토향진님은 정체성 혼란을 겪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인지 한국 역사도 자연스럽게 배웠고, 수업도 한국어로 들었거든요. 생활 터전은 일본이었죠. 그래서인지 각 나라의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사실 역사적인 일들로 일본을 미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재일교포 3세가 될 친구들 중에서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화목하시니까 그런 역사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생겨도 힘들지 않았어요.

Q 본인도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세요.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당연히 국적이 달라도 부모님처럼 사이좋은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과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고, 자라온 나라와 환경이 다르니까 문화적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 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 뉴스를 보다가도 외교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접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겪어왔던 경험을 많이 이야기 나눠요. 과거는 잘못됐었지만 앞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과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계속 얽매여서 살 수는 없죠. 어떻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살 수 있을지 많이 이야기해요.

Q 아이를 양육할 때 무식한 척 지혜롭게 하자고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남편을 만나기도 전부터 들었던 말이었어요. 한국에 시집 온 아는 일본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너무 잘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부족한 척을 해야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을 한다고.
다문화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무식한 건 안 되지만 무식한 척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아이에게 "엄마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줄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이가 설명하면서 스스로 더 이해를 잘하게 되죠.
공부 외에도 학교, 관계에서도 모든 걸 사사건건 다 지도하고, 알려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학교에서 계속 놀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꽤 긴 시간이었지만 결국 극복을 했어요.

Q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국적은 일본이긴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국적을 두 개 가질 수 없을 뿐이지, 한국의 피도 흐르니 한국인이기도 하고 일본인이기도 하다는 마인드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둘째가 유치원에 갔는데 친구가 그랬대요.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가 일본 사람이니까 같이 놀지 말래.
제 이름이 사이토 향진이니까 일본 엄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처음 느껴본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인 학교를 다녔었고,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알고 보니 가벼운 오해였어요. 친구가 놀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연락처도 모르니까 다른 친구랑 노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던 거래요. 직접 어머님과 통화해서 오해를 풀었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이런 거라는 걸 깨닫는 계기였죠.

Q 상처를 크게 받으셨을 텐데,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다문화 자녀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아이들도 엄마를 일본인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국적이 일본이니까.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또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이런 식이니까 아이들이 다문화 친구나 부모님을 뵈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다문화 가정분들 중에서 위축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위축되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득을 얻었다.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결혼이 어려움이 많은데도 선택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죠. 그러니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면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김수정

특수교육 대상 자녀 부모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한 명, 이렇게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에요. 나이는 마흔 넷. 아이가 장애 아동인 것을 좀 늦게 안 편이에요 아이가 세 살 정도일 때 알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휴직했어요.
사실 아이를 케어하는 그 2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고민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이가 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도 지르고, 막 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비장애 아동도 사춘기가 오면서 저와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장애 아동이 더 신경이 쓰여요.

Q 선배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을 같이 키우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수정님이 선배 부모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키우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아이를 더 보듬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됐어요. 아이가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창피하기도 했거든요. 아이의 힘듦보다 제가 힘든 게 더 느껴졌던 거죠. 아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부모 아니야? 어떻게 키웠기에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됐어요. 나름 아이를 위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걱정됐던 거죠.
장애가 나쁜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보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저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선들에 신경 쓰지 말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아이와 밖에도 많이 놀러 다니고, 일반 아이처럼 사랑을 듬뿍 주고. 그냥 모든 것이 느리고, 조금씩 다른 것뿐이니까 마음을 더 편히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Q 마음을 편하게 먹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이 있으셨나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친구들은 만나기가 조금 어려웠고, 비슷한 상황을 가진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상황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제 아이와 다른 아이가 비교되고, 말을 해도 공감이 잘 안되더라고요. 물론 위로는 받지만 마음에 확 와닿기는 어렵더라고요. 복지관 같은 곳을 통하기도 하고, 치료실에서도 만날 기회도 많았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특수학교, 일반학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때 조언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여유와 안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담당 복지사님이 추천해주시는 강의도 많이 들었고요. 예전에는 아이의 안 좋은 점만 계속 보였거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의 강점 찾기 같은 활동이나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학습적인 부분들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있어요. 최종 목표는 아이의 자립이니까.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 더 중요하죠.

Q 확실히 경험자에게 조언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잘 몰랐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선생님이 아이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중을 잘 못 하고,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마음대로 안 될 때 머리를 벽에 박는다고. 그래서 검사를 받고 알게 됐어요. 아이가 큰 아이와 조금 다르게 옹알이나 말도 빨리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정말 상호작용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혼자 놀고. 뭘 물어봐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옆에 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Q 아이와 치료실도 다니셨던 것 같은데, 효과는 있으셨나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언어, 인지, 감통, 체육 등 여러 가지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치료가 아이에게 맞을지 여전히 고민이긴 해요. 저희 아이가 학습에 대한 회피도 심하고, 불안도 심해서 미술이나 체육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선배 어머님들은 돈을 모아야 한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치료실에 쓰지 말아야 한다고, 다 소용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나름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치료실을 다녀서 한 것인지, 아이가 커서 그런 건지 의문이기는 해요. 딱 정확하게 얼마큼 좋아질 수 있다고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안 보내서 지금보다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것도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부모님들에게는 아이가 어릴 때에는 같이 놀러도 다니고, 치료실도 다니는 것을 추천해요.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자고.
또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은 가족 관계가 좋지 않아요. 불화까지는 아니어도 싸움이 많이 생기고, 비장애 형제자매 관계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장애 형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료받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똘똘 뭉쳐야 헤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한 명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가족 내에 분위기가 퍼져요. 아이가 어릴 때에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9살이 되니까 그렇게 못 해준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장애아동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Q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적도 있으셨나요?

저 혼자서 미안하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니까 알겠다고 하긴 하는데, 이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좀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싸매고, 일기 쓰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요즘에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큰 아이에게도 이래서 속상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제가 힘들어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면 가족들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Q 학부모 자조 모임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들은 사회성이 대부분 낮아요. 그렇다보니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관계 맺기가 힘들어요. 통합 교육을 해도 아이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친한 엄마들끼리 모여서,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고. 친하지 않아도 같이 모여서 우리가 친구구나, 이런 게 친구구나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학교, 집, 치료실 외에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른들이 주선을 해서 아이들이 노래방이나, 커피숍을 가서 많은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끼리 가는 게 어려우면 어른 한 명이 함께 다니고. 어쨌든 사회로 나가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고 싶은 거죠. 특별한 직업이나, 대학 생활을 못하는 것 빼고는 일생이 일반인들의 삶과 비슷하거든요. 유년기, 초등기, 청소년기, 노년기. 그런 삶들을 무리 없이 사회복지사나 나라의 도움을 받더라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Q 키우시면서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하셨지만, 좋은 일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하셨던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9살이 됐지만 여전히 아이 같으니까 누군가가 보기에는 황당한 일을 할 때도 많아요. 지나가다가 주변 사람에게 '아줌마 너무 이뻐요.' 이러고. 머리가 없으신 분한테 '왜 머리가 없냐', 뚱뚱한 분들에게는 '너무 뚱뚱해.' 이렇게 아무에게나 말을 걸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웃음이 나와요. 엄마랑 아빠에게 스스럼없이 부대끼기도 하고요. 아이가 몸은 컸지만, 마음은 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Q 아이가 어떤 성인이 되기를 바라나요?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독립적으로 스스로 즐거운 삶을 살길 바라요.



04

학부모책 활동가 활동후기





이선미

특수교육 대상 자녀 부모

2022 당신의 삶을 묻다
학부모책 이야기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을 섞어 반농담 반진담으로 한 말에 강사님은 당황, 어떻게 말해야 할지 주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 때문에 이생망이라 하다니… 참가자를 다독여야 하는 건지 웃고 넘겨야 하는 건지 주저하는 선생님의 침묵이 흐르던 중 다른 참가자가 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했어요. 지금까지의 노력, 이룬 성과들이 내 아이가 장애라는 것을 안 순간 무너지는 듯한 절망…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들. 긍정적인 엄마 마음을 위한 강의는 어느새 같은 처지의 엄마들끼리 신세를 한탄하며 공감하는 자리로 변했지요. 아이의 장애라는 게 그런 거더군요. 내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보다 더 무거운 것. 제3자로서 그 어려움은 헤아리는 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이란 자신이 비슷한 입장에 서지 않으면 힘드니까요. 장애아이를 키우며 모르는 것, 힘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해는 커졌지만 오롯이 담아 안아야 하는 엄마 마음은 많이 지쳐갔죠.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챙겨주는 강의는 왜 찾아보기 힘든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드물게 비슷한 강의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던 강사님의 이야기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유행가 같았죠. 오히려 같은 장애아 엄마끼리 더 마음이 통했고 실질적인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차라리 ○○이 엄마가 강의를 해줬음 좋겠어요. 아이에게도 헌신적이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다들 애 돌보느라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정말 우리 입장을 잘 아는 같은 장애인 엄마가 해주는 강의가 있음 좋겠네요." 엄마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학부모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고민이 됐습니다. 내 아이 하나 키우느라 급급한데 무슨 강의를....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셔야지...라는 마음과 내가 예전 괴롭고 힘들 때 찾던 답들을 조금이라도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통해 나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학부모책을 신청하고 첫 강의를 하게 된 날.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께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어색하고 실수 연발. 얄팍하기 짝이 없는 강의가 너무도 창피해 밤마다 수많은 이불킥을 했답니다. 그날 끝까지 들어주신 어머님들, 지금도 그 배려와 인내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일반 기관이면 당장 잘렸을 텐데 역시 평생교육을 시키겠다는 모토의 학습관에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구요. 고래 1개 사단을 춤추게 할 담당 주무관님의 따뜻한 격려 속에 다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는 건 과연 어떤 일일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힘들었던 것이 진짜 힘들어야 했던 것일까. 가장 좋은 학습법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의문들을 지나치지 않고 고찰하게 된 것은 학부모책이 되면서 가지게 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입장에서 마음을 이해하고 필요한 답을 찾는 사람. 그게 바로 학부모책이 만들어진 이유겠죠? 첫 번째 강의보다 더 나은 두 번째 강의를 하고 나니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학부모책은 보는 이보다 채우는 이에게 더 의미 깊은 기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깊고 밝은 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민채

특수교육 대상 자녀 부모

첫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쉼 없이 살아왔던 25년, 우리 가정의 시간은 아픈 아이의 시간에 맞춰 쉼 없는 삶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내가, 우리 집이 힘들어 보일 수 있다. 아픈 아이. 엄마, 아빠 모두 아팠던 시간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린 쉼을 택했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이 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내고 있다.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며 난 오늘도 잘 살아내고 있다.

우리 집에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는 둘째 녀석이 있다. 큰 아이와 12살 차이 나는 이 녀석은 일찍 철이 들어 버렸다. 커가며 엄마 아빠처럼 아픈 형의 식사를 챙기기도 하고 목욕도 함께하며 형을 씻겨주고 대소변을 치우며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일상처럼 한다. 하지만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이 일들이 때론 귀찮단다. 아무렴 그렇지.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 속에서 또 큰 생각을 전한다. “엄마는 이 일을 지금까지 했고 또 계속해야 하니 고생했어”라며 늘 “사랑해”란 말과 함께 아마 형이 말할 수 있었다면 “고맙다”라고 말했을 거라고. 내가 대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우리 형은 아파도 그래도 우리 집에 태어나서 행복할 거라고. 장애가 있는 형을 부끄럽거나 멀리하지 않고 우리 형은 항상 웃어서 좋다 말하는 녀석, 그래도 내 형이 안 아팠다면 더 좋았을 거 같다 말하는 둘째 아이의 이 마음. 난 항상 나의 둘째 아들에게 말한다. 네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럴 수 있다고. 작년과 지난 4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학부모책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대면이라는 갇힌 공간의 시간일지라도 자신의 얼굴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싫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둘째 아이와 함께 참석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참여하신 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창피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장애가 있는 형이 그래도 좋다고” 휴먼라이브러리, 사람책.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학부모책. 내 삶의 일부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박정연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2022 당신의 삶을 묻다
학부모책 이야기

우연에서 필연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학부모책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초2 둘째 딸의 e 알리미의 공지에서에서 본 '학부모책' 모집공고! 이때는 큰딸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얼마 안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과정들이 조금은 어렵고 낯설어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찾아보고 주변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
'학부모책' 모집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여서 혹시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움을 드리고픈 마음에 지원했는데 감사하게도 '학부모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부모책에 대한 브리핑과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권의 책처럼 펼쳐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같이 선정되신 '학부모책'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딸이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게 되어 올해는 '학부모책'에 지원할 수 없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참여하고 싶네요. 그 대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다른 프로그램인 '참여하고 공부하는 부모모임' 학부모 평생학습공동체 '참공부'를 알게 되어 올해는 참공부 일원으로 활동하였답니다. 처음엔 단순한 마음이었지만 이 년 동안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인연을 맺으면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항상 수고해주신 종선희주무관님! 저와 함께 학부모책 활동하신 선생님들!
우연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필연으로 쭉 함께해요.



최기원

학교 밖 청소년 자녀 부모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2022년도 학부모책 최기원입니다.
저는 인성교육과 성교육을 기반으로 소통교육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 사례들을 나누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스스로 학부모의 책이 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나 뵙고 싶었지만 디지털 시대인 만큼 온라인 줌을 이용해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다 보니 어색하고 고민도 많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시며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함께 나누는 것에 따뜻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학부모책을 시작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대한 경험을 여러 다른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토론하는 동아리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의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훌륭한 책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경험은 어느 누군가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이 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서로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의 한 페이지로 인해 감동을 받고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듯이 학부모책의 삶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 또한 돌아보며 삶을 챙길 수 있듯이 타인에게도 공감과 위안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학부모책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학부모책의 만남으로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당신의 삶을 묻다
학부모책 이야기

함께한 사람들

학부모책	공민채, 기타지마사에, 김수정, 문써니, 박경아, 박성관, 박정연, 사이토향진, 이선미, 진신숙, 최기원, 한나무, 후카자와쿄코
인터뷰어	유혜현

기 획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최현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 부장) 이강욱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학습담당 사무관) 이은나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학습담당 팀장) 종선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학습담당 평생교육사)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조한일
발 행 처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주 소	166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
전 화	031-259-1057
팩 스	031-259-1059
홈페이지	https://lib.goe.go.kr/gglec/index.do
편 집	디자인 폄킨

사전 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